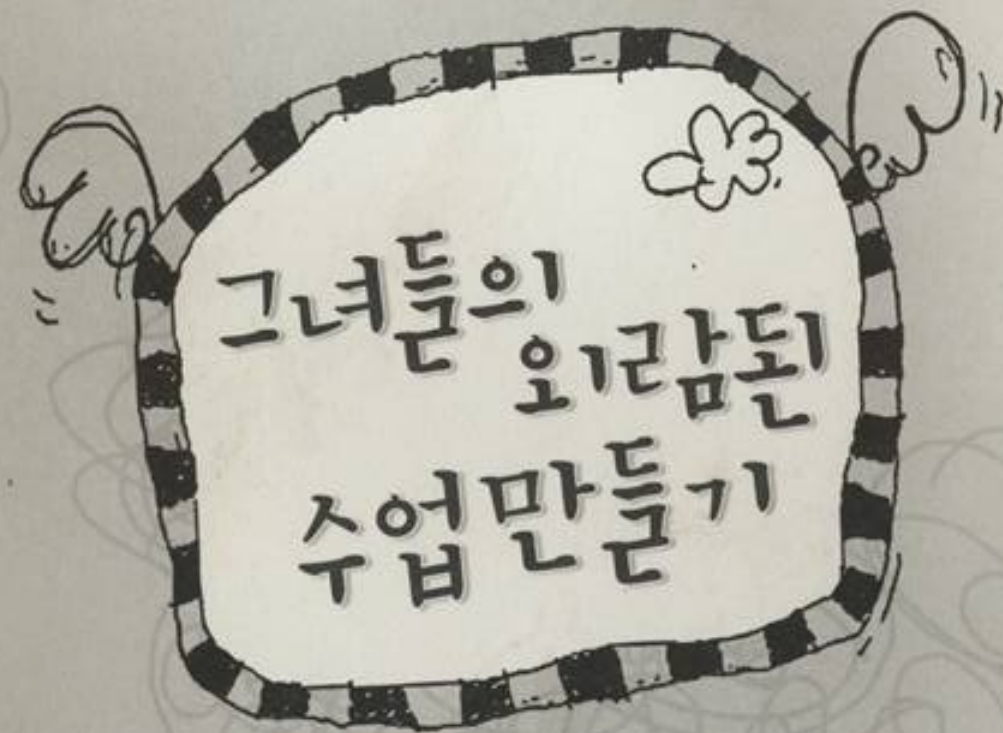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필·툼 17대 총여학생회
fenergyup@yonsei.ac.kr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필·툼 17대 총여학생회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 자료집을 발간하며

지난 학기 동안 두 건의 강의 중 언어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두 건 모두 발언 내용이 너무나 상식 이하일뿐더러 몇 년간 그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점에서 팔계나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가해자는 징계를 받았지만, 다른 한 명은 안식년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한 발언은 이슈가 되었지만, 수업 중 언어성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학기 중에 갑자기 수업을 중단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지금도 많은 강단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것이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문에 실렸던 그 가해교수들이 결코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은 대학 사회 안의 가부장성을 매우 일상적으로 드러내는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학생들은 아직도 강의실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수업 진행상의 실제적인 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적 발언으로 조성되는 불안정한 수업 환경을 경험합니다. 지속적인 물리적 성폭력을 겪고도 학위 문제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성폭력 사건들도 제대로 처리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겪는 무수한 폭력들이 연세대 내에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몇몇 여성자치단위에 의해 교수의 수업 중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으나, 여학생들의 수업 환경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15대 총여학생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강의 중 언어성폭력 모니터링 사례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는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교수성폭력 근절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 17대 총여학생회 역시 강의실 언어성폭력 근절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로 모니터링 사례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이 웹 커뮤니티와 확장실 신문 등을 통해 제보해 주신 사례와 총여학생회의 논의 글이 담긴 본 자료집을 통해 연세대학교 내의 모든 구성원들과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학생들이 어디서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더 나아가 학내의 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이에 관련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9월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툼 17대 총여학생회

CONTENTS

- 01 •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 자료집을 발간하며 02 • 강의실 언어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 04 • 강의 중 언어성폭력 사례 12 • 교수님, 왜 그러세요? 14 • 강단 위의 언어성폭력, 혹시 당신도 2차 가해자?
- 16 •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태도와 총여학생회의 여성폭력 운동 20 • 외람된 수업을 만드는 그녀들의 좌담

강의실 언어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들어가며.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를 진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 대학들의 언어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다. 해당 가해 교수는 '예쁜 여학생은 난 자 값이 비싸다' '여자는 밤일을 잘 해야 출세한다' '취업 하고 싶은데 못하는 심정은 성폭력 당하고 싶은데 못 당하는 늙은 여자의 심정과 같다' 와 같은 매우 폭력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은 비단 타 학교만의 사례가 아니다. "연세대에서는 그런 일 없다"는 학교 당국의 당찬 믿음과는 달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수 언어 성폭력 사례 모집을 위한 화장실 신문은 온갖 언어 성폭력 사례로 가득했다. 우리도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때이다.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가사, 육아 및 가족의 돌봄, 성적 대상, 값싼 노동력의 제공 등 억압적인 성역할을 요구하면서 남성들의 권력을 관철시켜왔다.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주변화 되었다. 교육의 현장 또한 결코 가부장제를 벗어나 있지 않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공식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강의실에서 교수에 의한 성폭력/ 성차별적 언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공적 영역 능력과 성취는 평가 절하되고 여성의 성에 대한 단일한 기준과 여성의 성을 대상화하는 담론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가해 교수들은 여성을 독립된 자아이자 사회 활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그저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적 시각으로 호모포비아(동성애혐오증)적 발언을 남발하며 개인의 성적 다양성을 침해한다. 가해 교수에 의한 언어 성폭력은 발언의 내용 그 자체가 가진 문제점과 더불어 그러한 발언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강의실은 개인의 능력이 계발되고 존중되며 평가되는 공적인 공간이다. 그 속에서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학생과 비(非)이성애자 및 이러한 성폭력적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많은 학생들은 거

침없이 언어 성폭력을 가하는 교수들에 의해서 편안히, 온전히 수업 받을 권리를 빼앗긴다. 언어 성폭력 가해 교수들이 난무하는 학문 공간 속에서 학업적 성취와 평가 역시 성별화되어 있다. 가해 교수들의 가부장적 사고에 따르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 양성해야 할 인물은 오직 '정상적인(남자답고, 이성애자인)남성' 일 뿐이며, 여성들의 학업은 결혼을 위한 조건이자 한시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조건이 될 뿐이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학문 활동의 기회 및 정보의 공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비이성애자 역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이를 학문과 연결시키기 어려워진다. 강의실 언어 성폭력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 및 비이성애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하고 배제시키는 과정 그 자체이다. 여성과 비이성애자는 가해 교수들의 폭력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무시당하고 강의실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한다. 여학생이 강의실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적 발언을 하며, 비이성애자는 아예 강의실에 없는 존재이며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양 공격을 가하는 가해 교수들의 과도한 용감함이란 매우 부당하고 비겁하다. 이러한 현실은 전 사회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과 비이성애자가 주변화 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수에 의한 언어 성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들에게 폭력이 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는 학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을 생산하는 학자의 위치에 있다. 그들의 가부장적 사고는 결코 그들의 학문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의 연구에 있어 하나의 전제로써,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로써 기능한다. 가해교수들의 성폭력적 사고와 언행은 강의실 내에서 학생들에게 사상적으로 재생산 될 뿐만 아니라 학문 체계이자 정책으로써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 것이다.

근절하자 교수 성폭력.

지금까지 강의실 언어 성폭력은 학점, 수업에 대한 통제권 등 교수가 가진 권위에 의해, 혹은 그들의 반여성적 내용에 대한 동의에 의해, 언어 성폭력에 대한 불쾌감과 적극적인 항의를 개인의 예민함이나 피해의식으로 간주하는 2차 가해에 의해 문제제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은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인 행동을 원했다. 가부장적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부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박하고 비난하려는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 속에서 우리는 여성과 비이성애자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모든 학생들에게는 수업 받을 권리, 공적인 성취를 이룰 권리, 자신이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수업에 도움이 되려고",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재미있으니까"? 가해 교수들의 그 오랜 변명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수업에 도움이 되려고, 좀 더 예민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강의실 내 교수 언어 성폭력을 근절해 보자.

강의중 성차별/성폭력발언사례



총여학생회에서는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싸이월드 커뮤니티 여자만의 방(femispac.cyworld.com) 익명 게시판과 총여학생회 이메일, 중앙도서관 화장실 신문을 통해 강의 중 언어성폭력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많은 분들이 사례 제보와 피해자에 대한 지지, 가해자에 대한 비판을 적어주셨습니다. 본 자료집에서는 실명으로 제보된 교수 및 강사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 하였으며, 사례 내용과 관련 없는 글이나 비방, 욕설 등의 답글은 삭제하였습니다. 제보된 사례는 성폭력 상담실과 공유하여 사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부장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강조

01. [화장실신문] 상대 수업 중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를 시집가면 쓸모없지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02. [화장실신문]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라고 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

○ 어떤 놈이나 이름 밝혀주세요! 쫓아내버리게

03. [화장실신문] 경제학과 K교수, 과에 여학생이 많아지면 큰 일이다. 다 시집가서 집에 들어왔으면 내가 가르친 거 다 소용 없지 않느냐

○ 나도 이거 들었었다. 여학우도 많이 있었는데 기분 나쁘다. 여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대학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했다.

04. [화장실신문] 심리학과 L 교수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래 암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취직하려고요.' '^^' '취'

직은 무슨, 그냥 시집 잘 가면 되잖아? 주변에 뭐 없어? 아... 식탁을 뒤엎고 싶었다. —

○ 진짜 아이었다. 여학생들 시집보내려고 강의해주니? 아님 남학생만을 위한 강의에 여성은 들러리? 저런 사람들 분명 대학 나온 자기 부인을 자신의 명예 위한 장식품으로 여기 겠지. 자기 말한데도 저러나?

05. [화장실신문] 제가 수업시간에 실수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면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혼나요.' 라고 하셨어요.

○ 황당 황당 너무했다. 어이X

06. [web] 현사범 P 강사

정치인들보면 주로 아내가 망 투기했다가 적발되곤 한디며 정치하실 분들, 나중에 마누라 '간수' 잘 하세요 =_= :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법을 가르치는 강의에서 돌아야 할 말인지.

●●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여학생들을 '결혼 상대가 될 남성을 보조해야하는 여성'들로 보는 지극히 시대에착오적인 시각은 아직도 강의실 내에 벼락이 존재한다. 결혼한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을 돌보기 위해 삶의 다른 부분을 포기하게 하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교수들은 여학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성취를 '결혼 전까지의 한시적인 것'이거나 '여성이 스스로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도 가정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여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성취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한다.

임신/출산 등 여성의 경험에 대한 비하

01. [화장실신문] '요즘엔 여자들이 임신해서 배불러 다니면서 도 회사 그만 안 두고 곳곳이 배탄다. 부른 배 가지고 사람 칠 듯이 말아야.' 진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 말했다. 난 어이가

없어서 똥어제라 채다볼 수밖에 없었다. 저런 교수가 교수로 있다는 거 자체가 이 사회가 썩었다는 것이겠지.

○ 와 진짜 아이없을 말도 안 됨 —

●● 임신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여성의 노동환경이 임신, 출산 및 육아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것들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임신한 여성들은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일과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다. 사실 위의 사례는 너무나 물지각하여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별/소외

01. [화장실신문] 상대 J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수업 전에 화장실 가는 건 아무 말 안 해도 여자들이 수업 전에 화장실 가느라 출석체크 제대로 못하면 개망신 준다. 선생님 지적 하시길래 화장실 갔다 출석체크 못해서 내 이름 더럽히고 개망신 당함.

02. [화장실신문] 화공과 H 교수님은 남자가 머리염색하거나 단정치 않게 하고 다니면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고 여자는 신 경도 안 쓰실.

03. [화장실신문] 소외시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 및 시 청각자료이용

04. [web] 2003년 리더십이론 K교수
조교가 출석부를 보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맞추어 조를 짜왔다. 수업 시간에 조별로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남학생들이 손을 들고 '저희 조에 여자 한 명도 없는데요'라고 했다. 그 때 어느 조의 남학생이 손을 들고 '저희 조에는 여자 네 명이나 있는데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듣더니 교수가 대형 강의실이었는데 그 조의 여자 4명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아무도 돌아가지는 않았고, 자리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름이 남자 같은 것도 잘못이지'라고 했다.

●● 수업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여학생은 학업 성취가 낮을 것이라고 으레 짐작하여 무시하거나, 남학생보다 부차적인 존재로 순위를 매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학생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업과 관련 없는 일상생활의 일부를 통제 받거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는 등, 학업에 매우 실제적인 악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사례 4번의 경우 교수가 불러냈던 여학생 4명은 각 조에 여남학생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다른 조 남학생들에게 '뽑혀야 하는 대상'이 되는 몹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가부장적 여성성에 대한 강조로 여성의 일상을 통제하는 발언

01. [화장실신문] 여자는 모름지기 다소곳하고 양전해야지
02. [화장실신문] 여자가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 쓰겠니
03. [화장실신문] 여자가 왜 그래
04. [화장실신문] 여학생이 말투가 그게 뭐냐?
05. [화장실신문] 혼전순결 여자만 강요
 ● 줄 이어없음
06. [화장실신문] 여자는 손걸 지켜야 한다는 교수의 말 어이 없다
07. [화장실신문] 발표할 때 옷차림보고 벨소리 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발표 날 차마입으면 무조건 자기 보려고 입는 줄 아니.
 ● 바지 입거나 치마입 같은 거 입고 하면 쿠사리 주면서 남자 같다느니..
08. 자기가 여자 공무원들이랑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드셨다면서 여자는 부드럽고 다소곳한 편이 좋다는 식으로 말함. 대형 강의였는데 웅장하기도 하지
09. [web] 이번 학기(2005년 1학기) 공대수업 K 교수 전공수업인데요.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교수가 연애에 대한 발언 꼭 하면서 하는 말이. 여자는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티내

면 안 된다고. 핑거링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여자는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아도 티 내지 말라고. 흠..

10. [web] 2004년 2학기 환경과조금
 음, 직선과 곡선에 대해 배우면서 직선은 곧고 강인하며 힘찬 이미지라서 남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 곡선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면서 뭐 물론 곡선같은 남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원만하면 직선같은 게 좋을꺼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위라위라위라'하고 그런 거 진짜 안좋다고 그러지 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참 하다가 나중에 군대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군대 있을 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고. 여러분도 실미도를 봤으면 알겠지만 원래 군인들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고. -- 실미도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참나 하면서 유가를 덕 나냈는데 아가씨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서 완전 꼭지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막 미안하다고, 화내지 말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렸으니까 수업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공개사과는 안하고 막, 자기가 차분 시간에 말한 거 다 농담이니까 잊으라고 대강 말하더라고요. --
 흠, 물론 나름대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진 않았고,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사례로 읽어주셨으면, 하네요. 예잉

●● 가부장적인 여성성에 대한 강조는 언어성폭력으로 쉽게 인식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가부장적으로 규정된 여성성에 맞출 것을 권하는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에 앞에서 개별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학업 성취와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별개의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불쾌함을 겪기도 한다.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업이 대학 내에 존재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01. [화장실신문] 일제시대에 중군위안부로 갔다 돌아온 여자는 마을에서 몸 팔은 화냥년이라 매장시켰다고 막 그 마을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네요.
02. [web] L강사 2004년 여름에는 서울대 농활 성폭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려면 농활을 왜 갑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농촌의 환경을 이해하고 연대의식을 가져야하는 건 맞지만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마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했어. 그 학생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03. [web] 지난 계절학기 사회학입문/L강사
 너무도 억울해서 여기저기로 올라야 할 것 같아요. 사회학입문 재수강 수업이었는데, 그 때까. 아마 2~3번째 시간이었어요. 사회학에 대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남학생들, 한창 청춘이죠.' 하면서 동판지같은 얘기를 시작하시더니, 그런 만큼, 성욕구가 강할 때라면서 못가지도 않는 농담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세춘추나 학교에 이상한 남자들이 가끔 올라오기도 한다면서 (아마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젊을 때 그런 건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죠." 하면서 또 못가지도 않는 말을 내뱉었어요. 어차구니가 없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다음 수업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어렵게 강사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역시나 계속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다,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 일투로, 결론은 저보고 상철해라 라고 답변을 보냈더라고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기분도 너무 더러워서, 아예 그 수업을 포기하고 F를 받았던걸로, 휴~
 지금도 그 때 생각만 하면,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4. [web] 정치학강의 L교수
 아이 많이 낳은 여성, 남편보다 덩치가 큰 여성에 대한 비하 '게그'를 시작하더니 결국 때 맞는 남편 얘기가 나오고, 여성 상위시대가 올 거랍니다. 때 맞는 남편의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되었던 몇 년 전의 기사는 제대로 기억하면서, 그보다 훨씬 다수의 아내는 '사랑의 때'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공인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사회구조의 가부장성에 대해 인식도 하지 못하고 '여자가 능력이 좋으니까 여성 상위시대가 올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가르칩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도 '마가렛 대처 이 여자가' 라고 했다가 '하, 여자라고 하면 비하하는 것 같지? 이 여성분이' 라고 말하면서 뭔가 '비꼬는' 듯한 얘기로 수강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다' 문화제 행사였던 콘서트 나눠주기에 대해 '그게 자랑이나'라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도 하고, 여튼 기분 나빴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이 교수님이 자기는 페미니스트래요.
 대형 강의라 차마 손들고 항의의 뜻을 얘기하기도 어렵더군요. 점수 깎이는 건 신경 안 쓰이는데, 수업 결다리로 출라건 아이기에 5분X200명의 시간을 뺏는다는 게 미안해서요. 게다가  교수님은 누누히 '내 얘기는 가치중립적인 얘기고, 너희들에게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거니까 이런 걸로 나 귀찮게 하지 마라'고 얘길 하고 있기도 하고, 임한 수업 정말 짜증납니다.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¹⁾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재생산해낸다. 피해자를 '몸 팔은 화냥년'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생각이다(사례01). '그러려면 농활을 왜 가느냐'는 말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하거나(사례02) '한창 청춘'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 옹호론을 펼치는 것(사례03)도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통념을 강의실에서 유포하고 재생산시킨 것이다. 사례04에서는 아내폭력에 대해 감수성 없이 올바르게 못한 인식을 가지고 가볍게 말하고 있다.

1)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왜곡된 통념을 적용시켜 성폭력 생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행위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 1

01. [화장실신문] "이 세상은 성이 세 가지 존재하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줌마." (남자, 여자, 공대여자...) -전공과목 수업시간에 강사님께서 예로 들-

- 학 수업시간에? -0-
- 학~ 나 공대생ㅠㅠ

02. [화장실신문] O교수님의 마케팅 수업에서 여자조고 알, "여자들이 맨 앞줄에 앉아서 애교떠시면서 시형형위 좀 줄 여달라고 그러시면 교수님께서 줄여 주실 거예요." 좋겠다 너 여자라서 어이없음...

- 허허 여자조고 진짜 어이없어
- 이거 정말 웃기다
- 여자로서 이용할 건 이용하지는 주의할 뿐이라 생각함

03. [web]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강사

이번 여름(2005년 여름) 계절학기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강사, 학생들에게 직장생활과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접대를 잘 해야 하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술과 여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시에 '술이 좋다'는 술집을 들먹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 다시는 우리 학교에서 수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성애화되고 성적 대상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의 성은 남성 판타지, 그 안에서 존재해야 하고 여성들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통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성적 영역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서는 것을 방해한다. 또 여성이 존재하는 여러 맥락을 삭제한 채 그저 여성을 성적 존재로만 보는 것은 여학생들의 성취를 방해한다. 사례에서도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색수열리타를 재단해서 여성을 구분 짓거나(사례01) 사회에서 여성이 성취를 얻으려면 성적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거나(사례02) 여학생들을 '꽃'으로 표현하며 꺾거나 버리거나 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등(사례04-2) 여성을 성애화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잘 드러나 있다. 접대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여성의 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사례03). 기차역 주변의 나쁜 술집들이 정화되었다, 는 말은 그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그 곳에 있게 된 맥락 등 성매매 여성들의 모든 것을 삭제하고 그 여성들의 죽음에 대해 가부장적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나쁘다' '정화' 등 철저하게 남성중심적 판단으로 내려진 용어 또한 자기검열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여기 있는 남학생들에게 미안하'라고 함으로써 그 곳에 있는 남학생들을 성구매자로 상징하고²⁾ 이제 죽은 여성들의 성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례04-2, 성매매 여성들이 죽은 것은 정화, 성구매할 수 없는 것은 애도! 진정 당신에게 애도를 표하고 싶다). 여성의 성이 극단적으로 대상화되고 매매화되는 현상인 성매매를 적극 권장/옹호하는 발언, 하물며 성매매에 대한 모든 사회적 맥락을 삭제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가부장적으로 단죄하는 발언이 정말 강의실에서 이루어져도 되는가?

2) 성매매 근접해 뜻을 함께 하는 성구매 하지 않는 남학생들, 열 받지 않는가? 강의실의 모든 남학생을 성구매 범죄자로 상징해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 2

01. [화장실신문] 여자 예쁜 건 남자 고시원 것과 같다 - 정외과 모교수님

- 근데 더 웃긴 건 정말로 그런 사회풍토

가진 인간 많다.

02. [화장실신문] 이쁘면 다된다. 경제학과 교수 중 이런 생각

03. [화장실신문] 아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외모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 외모에 대한 획일화된 미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삭제시키고 많은 억압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는 여성에게 심하게 적용된다.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까지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적합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아닌지로(혹은 그것으로만) 판단 받는 경우가 많다.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강의실에서 일부 교수들은 가부장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재단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주체성을 무시하는 발언

01. [화장실신문] "여자는 철학을 못 하는 거 같아. 여잔데 철학 잘하는 사람 본 적 있나? 문학이라면 몰라도. 여성은 본래 좀 열등한 것 같지 않아?" 물론 이 뒤에 이렇게 만든 건 '사회'라는 점을 덧붙이긴 하셨지만 수업 내용상 별 관련 없는 얘기였음.

- 허, 이거 진짜 소름돋네요. 완전 여성을 '이성'과 분리시켜서 보는 남성 중심적 시각의 결정체.

02. [화장실신문]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여자와 몸매 좋은 여자 중 누구랑 결혼할래? 질문해서 강의실 전체 남학생 답한 적 있어요. 여자는 뭐 무조건 남자가 선택해 주면 좋아라 시집가나?

03. [web] 웃긴, 국문과 전공 수업하시는 H교수님.

첫째 주 수업인데, 출석을 부르고 나서 'o o o' 어떤 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맨 앞에 앉아 있던 여학생이 대답을 하고 손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 분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거

예요. '4학년생이고 이름이 남자 같아서 복학생인줄 알고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여자였네요' 이러면서, -- 질문 내용도 언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복학생만 대답할 수 있는 건가요. 참, 모가 미안하다는 건지, 한참 웃었네.

04. [web] 오늘, 수업에서.

참,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웃고 넘겼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수업 시간에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전에는 연대 교육학과에 남자가 많아서 이대 교육학과랑 연합동아리 같은 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대랑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연재부터가 없어지더라. 우리학교 교육학과에 여학생들이 많아져서 이대 교육학과랑 교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같은 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으니 개연에 대상. 지금 교육학과에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고대 남자 많은 교육학과랑 교류하려는 고민 없나?' 학문적 교류에 대한 필요에서 만나는 목적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

으로 여학생을 연애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내가 개교한지 110년 이래로 초등교육학과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런 것 같으냐?"라는 교수님의 질문에 몇 명의 학생이 '취업난' 등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얼마 전 듀오에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신부감의 직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교 교사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후로 이대 초등교육학과가 가장 수능 성적이 우수하더라. 그게 다 최고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 많은 여학생들이 다 몰려서 그런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남학생들은 다 어느 특성과로 몰려야 맞는 이 차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인의 생각과 꿈을 무시하고 초등교육을 지망하는 모든 여학생들을 '최고의 신부감'이 되기 위한 것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여학생들은 꿈도 미래도 없이 오직 좋은 남편만나기 위해 대학에 가고 직장을 얻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다지 생소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성취를 저해하고 의욕을 떨어뜨린다. 철학을 잘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여성은 본래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남성 중심적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사례01).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권을 삭제시키는 것 또한 여성을 주체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남성에게 의해 선택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사례02). 사례03에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질문을 던지지 않은 것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의 성취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이다. 왜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잘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상정하는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교류하는 목적을 연애라고만 상정하는 것은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또 여성이 전공을 선택하는 여러 맥락과 주체적인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저 '좋은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라고 못 박고 있다(사례04).



01. [화장실신문]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니까 거론할 것도 없다. 이런 말까지 해요 —

○ 맞아요. 그놈의 정신병 타령

02. [web] 프문예 K교수

남성 성소수자를 '효모'라고 표현해서 학생들을 웃게 만들어요.

자신이 프랑스 유학시절 동성애자 친구들이 많았다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는 척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전에 자신의 경계심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호모포비아를 드러내죠. 그리고 동성애자 비율이 평균 6% 라면서 (어디서 주위들었는지) 이 수업에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효모'라고 희화화시키죠. 좋다고 웃는 학생들도 당황스럽고, 계속 그 표현을 쓰는 교수도 당황스러워요.

03. [web] 2005년 1학기

교수님이 칠판에 영어 문장을 쓰며 수업을 하다가 his or her 이라고 쓰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단순히 '이렇게 쓰지 않으면 여성단체에서 난리를 친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요즘에는 암에 father라고 써도 뒤에 he로 받으면 안 되고 mother라고 써도 she로 받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라며 father를 she로 받을 수 있고 mother를 he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웃으며 말했다.

세종고 보니 진지하네... 전혀 진지하지 않았고 희화화했다. 학생들 웃었다.

●●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웅담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자여야 한다는 독단 아래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는 개인적인 성적 지향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성별 권력관계와 가부장제를 공고히 한다. 이성애자라는 이유로 비이성애자를 무시하고 그 존재를 삭제시킬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이성애자들이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혀 근거 없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다(사례01). '효모'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 대한 희화화를 이끌어내 학생들을 웃기는 것 또한 아무 성찰 없이 호모포비아를 드러내고 이를 재생산시키는 행위이다(사례02). 사례03에서는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할 경우를 제시하며 동성애자들과 그 결혼까지를 희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례에는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나타나 있다.

[화장실신문] 우리나라 대학교수들 자성해야 한다. 학부 수업시간 뿐 아니라 대학원생한테 더 심하다. 우리나라 여자 대학원생들(남교수 밑에 있는) 정말 많이 참고 사는 듯... 교수들에 대한 이런 비판 의미 있는 것 같다. 총여~회 파이팅이다.

교수님, 오해 그러세요?

박은1 갈라진 바닥의 풍 한 줄기

“헉, 내 발언이 그런 것이었구나!”

지적받은 교수는 놀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그렇게 잘못될 수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울러 새롭게 알게 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다음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그 다음부터 수업에서 불쾌한 말을 들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이런 교수들은 극심하게 드물다.

박은2 엮구려 뿔려 일단 접하기

“아, 미안하긴 한데~~”

자신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고 새삼 깨달으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회피한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지는 말아라, 미안하긴 한데 학생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는 못하겠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는 말라 달라, 등등.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회피하려고 하는 이 태도 앞에서 상당히 헛갈린다.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일단 불 끄려고 사과한 건지 그렇다면 굳이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뭘지?

어느 날, 엘리스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들었다. 엘리스는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혹은 조용히 web을 통해, 혹은 성폭력 상담실이나 총여학생회의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교수님께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 늘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 뭐래??”

박은3 둔감함도, 감수성 없음도 미역?!??

“엘리스, 자네 지나치게 예민하군”

뭐 일단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면, ‘예민한 학생의 문제’로 단순하게 치환해버리는 능력이 다분히 뛰어나다. ‘일단 인정한다’고 말함으로써 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엘리스에게 ‘예민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문재없음’으로 일축해버리며 문제의 원인을 엘리스에게 돌린다. 아마도 엘리스는 집에 가서 ‘나 정말이지 그렇게 예민한 걸까’라는 말을 백만 번, 혹은 세 번쯤 중얼거릴 것이다. 교수는 이런 이중 효과로 유유히 문제에서 빠져나간다.

박은4 유식무죄(有識無罪)

“이봐,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나는 이러저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굳이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자신의 온갖 지식을 동원해 라캉이 어쩌고, 해겔이 어쩌고 불라불라불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형. 결국 ‘그걸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으로 듣는 것은 내가 무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 교수님,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감수성도 좀 배우시지 그랬어요.

박은5 Have no concept, Be happy.1)

“즐거운 수업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즐거워하잖아. 수업이 재미있으면 이해도 잘 되는 거고, 난 수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네!” 엘리스는 ‘재미있는 수업을 위한 당신의 perfect limited 상상력’에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교수와 이런 논리에 수긍한다. 엘리스는 또 한번 박수를 친다.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재미있다고 마음껏 표현하는 - 자신들의 개념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용기에 - (서글프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

박은6 수업은 숲,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은 ‘그저’ 나무 한 그루(?)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파악해야지.”

아무리 그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수업의 맥락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그 ‘별소리’ 한 마디로 자신의 수업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수업은 문제가 없고 훌륭하다고 한다.

“그, 그래, 그 발언은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교수님의 수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성차별/성폭력적이지 않으니 - 버럭 무슨 말장난이냐. 오늘도 헛갈리는 엘리스. 그만큼 그럴싸한 논리다. 하지만 숲을 구성하는 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다.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청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게 전체적인 수업의 맥락을 살리는 길이다. 수업의 맥락과 그 안에서 일어난 별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일어난 수업’, ‘성차별/성폭력적인 맥락을 가진 수업’ 무슨 차이가 있나요?”

박은7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이거 성폭력 아닙니다.”

일단 말을 해놓고 재빠르게 강의실의 미묘한 반응을 파악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지르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별소리를 한 후 점잖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제기할 가능성을 씩부터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는 게 있어 보인다는 건 모를까.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을 하였으니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이 아닌 것으로 존재해야 하라.”

박은8 갈수록 태산

“성폭력이라고 신고 하세요~~”

“이런 말 듣고 꼭 뭐라고 하는 학생들 있는데, 아싸! (이런 어감으로) 신고하세요, 칼칼!” 분명히 ‘신고하세요’라고 하고는 있으나 ‘신고 한 번 해보시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아우라를 준다. 게다가 스스로 그것이 성차별/성폭력적인 발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별 처리거나 오리발을 내밀기는커녕 뒷발을 내미는 격. 하지만 엘리스가 공포스러워할 때 많은 학생들은 똑같이 칼칼할 것이다. ‘야, 너 신고해~’라고 옆 친구를 콧 피르거나 하면서 - 교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박은9 한 번 무개념(無概念, no concept)은 끝까지 무개념

“끝까지 다같이 즐겨봅시다!!!”

“나한테 이런 메일이 왔는데.” 다음 수업 시간, 교수는 이렇게 말을 꺼내며 주삼주성 손수 프린트해온 종이를 꺼낸다. 그리고 들뜬 표정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간다. “교수님의 이러한 발언은,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발언을 다시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학생들 앞에서 사과를, 아니 글썽 나한테 이런 메일이 왔지 뭐니까 여러분, 재미있지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하, 나보고 사과를 하래요, 글썽.” 엘리스가 사색이 되던 말간, 교수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남기며 수업을 시작한다. 정말 이 말만큼은 해주고 싶다. “재밌나?”

박은10 뽕꾸린 놀이 성낸다.

“엘리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자네가 왜 이러나?”

실지어는 이렇게 못 박기도 한다. ‘내 발언이 성차별/성폭력적이고 어쩌고? 전에 그런 학생 나한테 F 받아갔습니다.’ 서글프게도 앞길이 구만리 같은 건 맞다. 당장 수업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학점도, 경험도, 앞으로 또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도, 지도교수도, 대학원도, 사회 진출도, 생애면 무섭다. 아무리 뽕꾸린 놀이라 - 앞길이 구만리 같기 때문에 생애 권력에서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운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거야, 네 멋대로 성취주고 합격시키고 학생의 앞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스승이라는 이름이 아깝네요, 흥.



1) 개념 없으면 즐겁다.
2) 차라리 혹은 아예

강단 위의 언어성폭력,

● 수업 중인 강의실, 교수가 갑자기 날씨도 덥고 나른하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누가 들어도 명백한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이 마이크를 타고 온 교실로 흘러나온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 장면 앞에서 강의실 안의 '동조자'들은 가슴을 뒤로 찡하며 보란 듯이 큰소리로 웃거나, 또는 손을 입가에 갖다댄 채 킁킁댄다. 단 몇 분만에 이루어진 '누군가를 배제한 즐거운 수업'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강의실 내부의 동조자들을 보며 자신이 불쾌감을 스스로 감내하거나, 그들의 외면이나 불만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 침묵하곤 한다.

성차별과 성폭력의 대상은 대부분 여학생들이며, 여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의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배제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상적인 경험과 성폭력이 맞닿는 현실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반면 남학생들은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동조를 집단적인 제스처로 표현하여 강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익숙하다. 교수 역시 학생들의 반응을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단 위의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강의실 내부의 동조는 문제를 느낀 이들을 망설이거나 침묵하게 한다. 성폭력적 발언으로 인해 수업에

서 배제된 학생들은 해당 발언을 농담으로 가볍게 넘기거나 진지하게 두둔하는 학생들로 인해 또 한 번 강의실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발언이나 글을 통해 수업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심한 경우 편견과 오해로 가득찬 폭력적인 언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해 자보나 인터넷상에서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은 문제가 커질수록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요구당하거나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정작 그 발언을 한 교수의 책임은 사라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과도하게 예민'했거나 '수업에 해를 끼친' 이들로 몰려버리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게다가 이렇게 심각한 2차 가해의 사례들을 2차 가해 사건으로 인식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문제를 느낀 이들은 자신의 문제제기가 어디로 뛴지, 자신이 원하는 논의나 교수의 사과를 커녕 자신에게 책임이 돌려지지 않는지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강의 중 언어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쪽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키기도 한다. 결국 문제를 느낀 학생들의 침묵은 자신도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 낫다고 체념하거나 해당 발언을 자신과 떨어뜨려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이는 강의실 내부에 만연한 남성중심성에 대한 적응 방법이기도 하다.

강의 중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대응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나 강의 중 언어성폭력과 2차 가해를 막는데 강의실 내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어느 부분이 어떠한 맥락으로 성차

혹시 당신도 2차 가해자?

별적이며 성폭력적인지 조목조목 제시하기는 어렵더라도, 자신이 불쾌감을 느낀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강의실 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강의실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문제제기가 어렵다면, 강단에 서 있는 교수나 강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교수의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 표정을 일그러뜨리거나, 비웃거나, 썰렁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곳곳하게 자신의 불쾌함을 표시한다. 이러한 반응들은 강의 중 언어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해당 발언으로 입는 타격을 최소화시키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하며, 불쾌함과 분노를 느낀 학생들이나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소극적 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강의 중 언어성폭력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많은 것들 - 권위주의,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수업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의실 내부의 남성중심성 - 에 대한 거부의 목소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의 중 언어성폭력은 일차적으로 강단 위에서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구분하지 못한 교수의 책임이다. 수업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가부장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절 노력은 강단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폭력적인 농담이 더 이상 강의실 내에서 유머로 통할 수 없고, 여성들의 능력에 대

한 평가 절하는 교육자로서 잘못된 태도이며, 성별과 성적체성에 대한 차별적, 폭력적 언사를 내뱉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강의실은 성별이나 성적체성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편견이든, 이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저항과 반성이 펼쳐지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교수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에 맞는 성찰의 의무가 엄연히 존재한다. 학생들 역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동조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는 것은, 단순히 이런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이중삼중의 책임을 지우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대학 내 성폭력 근절 운동이 십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동체 역시 가부장적이다 라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학 안의 가부장성은 성차별적, 성폭력적 언어들이 학문 전달을 위한 사례로, 수업의 내용으로, 수업 전개에 필요한 농담거리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강의 중 성차별적, 성폭력적 발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 그리고 내 옆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을 지지하자. 지금, 수업을 듣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부장성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강의실 안의 성폭력적 문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한 학교의 태도와 총여학생회의 반성폭력 운동

●●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부터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학내 여성운동 단위가 지속적으로 교수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사건예방과 처리에 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과정은 교수의 사회적 권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교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에는 다양한 유형과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 강의실에서 발생하는 언어 성폭력은 2003년 연세대 박순근 강사에 의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심각성과 보편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실 언어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처리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는, 학교다. 그러면, 꽤나 큰 파동을 일으켰던 2003년 연세대 박순근 교수의 사건에서 학교는 무엇을 했었는지 짚어보자.

2003 법대 강사 박순근 사건

박순근 강사는 수업 중, 자신이 쓴 헌법 강의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에 “이 책의 구입을 위해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남자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이 사례는 당해 총여학생회가 개최했던 ‘교수 성폭력 토론회’에서 수집된 것이었고, 이 토론회를 취재했던 한겨레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익명으로 보도되었던 이 기사에 대해서, 박순근 강사는 한겨레의 ‘왜냐면’ 지면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성차별·성폭력적이지 않음을 해명하는 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법대 학생회는 이에 대한 입장글을 내놓으며, 동시에 학교에 교수 성폭력에 관한 공동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박순근 법대 강사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을 밝히고, 박순근 강사에

대한 이후 대응방침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

(2)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또한 교수 - 학생간의 성폭력 사건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예방교육에 학생들의 참여도 보장할 것을 요청.

(3)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청. 또한 실질적인 조치의 한 방법으로써 ‘가해자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

그러나 학교는 박순근 법대 강사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2005년 현재까지 교수 및 강사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가해자 교육 이수 의무화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그런 교수가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교수들도 함부로 허튼소리 못한다” 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많은 학생들이 교수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에 대한 목소리를 학교를 향해 꾸준히 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의 철책같은 믿음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학교가 학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건예방과 처리에 관한 의지가 없으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3년의 박순근 강사 사건은 그러한 학교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교는 2003년 박순근씨 사건처럼 매우 크게 이슈화 되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요구안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다가, 사건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그런 교수 없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학교 당국의 처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교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교수이기 때문에,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도 가해교수의 잘못을 비판하기 보다는

두둔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많은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그러한’ 농담을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담을 ‘성폭력’이라고 명명하는 학생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려버린다. “예민하다.” “보편적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는 발언이었다.” 라는 말과 함께, 또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학교의 태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무관심하다. 조용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식이다. 왜냐하면 학교에게 있어서 성폭력 사건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은 학교의 명예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매우 쉬쉬하며 어쨌든 “종계종계” 넘어가려하고, 가해교수나 그를 지지하는 동료 교수들은 학교에 동조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사건을 축소·은폐 시킨다. 이러한 교수와 학교사이의 카르텔은 교수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준다. 가해 교수들은 학생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훨씬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있어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되려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다.

생각보다도 많은 학생들이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경험한다. 총여학생회로 신고하거나 화장실 신문,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드는 사례는 매우 많으며 다양하다. 하지만 교수 및 강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학교의 공식 기구 -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 대책위원회 - 로 처리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성폭력 학칙이 작년에 개정되었으나,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다루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다. 만약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 학칙으로도 교수성폭력을 충분히 다루고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관계를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역량과 의지가 없다. 또한, 교수 학생 간 권력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조항을 재정할 의지도 별로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학생들이 자신의 사례를 전달할 공식적인 통로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강의실 언어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의 명확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현 학칙을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요구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총여학생회는 대학기 말에 시행되는 강의 평가서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문항을 만들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 학칙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고 일차적으로 성폭력 상담실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게 한다. 강의 평가서는 좀 더 부담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이 강의평가서 문항에 들어감으로 해서, 학생과 교수, 강사 모두에게 성폭력적 언행에 주의하도록 하는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수업모니터링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여학생회는 이에 대한 요구를 2003년 교수-학생 협의회 자리를 통해서 하였고, 올해까지도 매년 교학협과 정기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차별·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강의 평가 문항을 넣기로 하였으며 그 문항을 검토 중에 있다. 진행이 잘 되면, 내년 1학기 봄 문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학교는 홈페이지 제작, 혹은 병원 건물 하나 세우는 것은 푼돈일지 모르지만, 강의평가서에 성차별·성폭력 발언에 관한 문항 하나 넣는 것은 이렇게 3~4년 동안이나 지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칙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매년 초 신입 교원만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건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 심각성의 무게를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여학생회에서는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것을 여성특별위원회나 성폭력 대책위원회 등의 자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타대학 상담실과 함께 온라인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2월로 완성되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수들이다. 이제까지 성폭력 상담실에서 모든 교수들이

만약 학교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현 학칙으로도 교수성폭력을 충분히 다루고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관계를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역량과 의지가 없다.

참석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매년 더 중요한 사안에 밀리게 되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려고 하니 비공식적인 자리에까지 참석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교수는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교수/강사님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했는지 아닌지를, 수강편람에 표기해줄 것을 학교에 요구하였다. 물론 학교는 목각처럼 총여학생회의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요구사안은 강의평가서보다도 훨씬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끊임없이 학교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학교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강의실 언어성폭력 사례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총여학생회는 이에 대해서 학교가 예방과 처리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학교는 쉽게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왔다. 그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양질의 수업내용과 환경보다 교수와 학교의 명예를 더 우선적인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그것이 제도와 정책으로 정착되는 것 간의 속도차이는 크다. 그런데도 뭔가 학교는 바쁘다. 혹은, 바빠 보인다. 세계100대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일까. 제발 젠더인식에 기반한 학생 교육권을 위해서 바쁘길 바란다. 또한 진지한 고민으로 시작되지 않은 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말하는 여성성폭력에 대한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지를 학교는 깨닫기 바란다.

총여학생회는 교수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주의자 연대이하, 교성절연이라고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성절연은 고려대학교 여성위원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성균관대 총여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와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로 구성되어있다. 교성절연은 교수성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이다. 아마도 이 자료집을 통해 교수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고 수백 번도 더 말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총여학생회 혼자만으로는 대응하기에 벅찬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사정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몇몇 대학교 여성운동단위들이 힘을 합친 것이다.

교성절연에서는 꾸준히 공청회와 토론회, 좌담 등의 형식으로 통해서 교수성폭력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학내와 사회에 알려내는 작업을 해왔다. 또한, 사건이 생겼거나 부당한 제도가 있을 때 입장을 발표하고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2004년 교육부 정계재심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탈레이 1인 시위가 있었고, 2004년 교수성폭력이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교육부에 교수성폭력 특별조항을 만들어 각 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5년에는 한국성폭력 상담소와 강의 중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수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건과정에서의 어려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교성절연은 1주일에 한 번씩 학내 상황과 취할 수 있는 역점들을 공유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외람된 수업을 만드는 그녀들의 죄담

참석 : 최 루나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남이, 신지, 사이 (숭실대 총여학생회)
고래, 둘레, 별, 초생 (연세대 총여학생회)
곰곰, 호수 (이화여대 여학생위원회)
누리, 형은, 더지, 불랑 (관악여성모임연대)

<고대 이야기 해주세요!!!>

쥐 : 고대 여성주의 일년나기라는 이름으로 교수 언어 성폭력 모니터링을 시작한지 2년째예요. 작년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도 실었죠. 교수들에게 먼저 언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은 강사들에게 보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올해 3월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작년만큼 활발하진 않고 공식적인 루트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 사례를 수집했어요. K교수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교수가 강의시간에 '그러한 발언은 내 방식이다'라는 식으로 잘못을 회피했고 다시 그것이 대자보로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수가 아예 수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정경대 학생들이 항의 편지 보낸 것을 '너희는 뒤에서 악명으로 나를 공격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K교수 사건은 오마이뉴스에 처음 기사가 나왔는데, 모니터링 측과 사전 합의 없이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거죠. 그 이후에는 교수는 빠져버리고 학생들간의 논쟁으로 옮겨갔어요. 수업권

※ 일년나기 프로젝트는 고려대학교 건대여대 여성부와 여학생위원회, 총학생회 여성국회 연합단체로, 작년부터 강의실내 언어 성폭력 근절 '레드카드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레드카드운동이란 수강생기에서 퇴장의 의미인 빨간색을 차용하여 교수의 언어 성폭력, 성폭력 발언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침해를 입고 나온 수강생들과 일년나기의 대립으로.

둘레 : 교수가 발언 내용에 대해 해명한 적 있었나요?

루나 : '백라상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만 반복했어요.

쥐 : 대부분 수업 듣는 학생들도 '그런가보다...'라고 생각 했어요. 정경대 학생회장이 사

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일년나기 프로젝트팀으로 그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회장에게 집기를 던지면서 거센 비난을 했고 인터넷상에서도 강의실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심한 말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견희 사건이 터져서 이 사건이 묻혀버리고.

더지 : 모니터링요원에 많아들 지원을 하나요?

루나 : 사이트 가입으로 모니터링 요원 지원을 받았어요. 전에는 인원이 좀 됐는데 이번 K교수사건 이후에는 많이 없어요. 한 번 일이 터지면 크게 불거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가 어렵기도 하구요.

쥐 : 이번 사건의 영향이 크긴 하였지만, 이전에도 모니터링 요원의 한계는 있었죠. 자기가 듣는 수업만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되는 교수가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 몇 명이 그 수업에 들어가서 직접 모니터링해서 일년나기라는 팀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방법을 써보기도 했어요.

고래 :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었나요?

쥐 :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 시간마다 한 발언씩 하는 교수의 경우, 쪽 적어서 왜 문제가 있고 사과를 수업시간에 하시라고, 사과 하지 않으면 다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수업시간에 사과했어요. '어떤 사람이 불쾌했다면 그 전에 있어서 사과하겠다'라는 식의 사과였지만요. 대자보로 여러 차례 했어요.

루나 : 대자보는 금방 떼어진다고 해도 소문은 금방 학

내에 퍼져요. 자보 앞에서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서 재밌다는 듯 보라고 한다던가.

...잘 뭉치는 반페미니스트들 -_-

<학교 제도 부분>

고래 : 학생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것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제기 할 경우에, 학교가 교수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제도화 관련해서 학교랑 이야기해본 적은 없네요.

쥐 : 3월 교육투쟁 때 요구안으로 제출한 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본 적은 없구요.

학내 상담소랑 이야기해서 학기 초에 교수들에게 주의 메일을 보낸 적은 있어요.

초생 : 학기 초에 교수 강사 반성폭력 교양, 그거 잘 안 되죠?

루나 : 하긴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상담실 선생님 말씀이 벌금이나 고소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교수 강사들이 긴장한다고 하시더군요.

초생 : 우리학교엔 학교기구조, 여학생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 교수들이 '우리연대는 그런 일 없다' 하는데 화장실 설문지 했더니 사례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모두 : 똑같은 똑같은 -_-

고래 : 관련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기존의 반성폭력 학칙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강의실 언어성폭력의 한계 많이 느껴요. 강의실 언어성폭력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한다기보다는 교수의 발언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교수에 대한 예방과 처리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존

의 반성폭력 학칙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만 공식적인 처리가 가능하니... 강의실 언어성폭력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강의실 안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공감>

더지 : 교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할 당시의 분위기나, 타이밍, 남자들의 반응 등등... 문제점을 적절히 표현할 언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따라서 공감을 얻기도 쉽지 않겠죠.

초생 : 교묘한 경우! 생물학과, 의대! 실험 결과를 들이밀면서 남성은 어떻게 여성은 어떻게-식의 발언을 이론으로 소개하잖아요. 반박하면 '이건 과학이다'라고 말문을 막아버리고

호수 : 정말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듣는 사람들도 그게 왜 잘못된지 생각안하고,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이런 때 문제제기하기 정말 어렵죠.

초생 : 동성애자 이야기 참 심하죠? 제가 들은 한 수업에서 초청 강사가 '내가 유학 갔을 때 내 교수 5사람 중 무려 4명이 동성애자였다. 하하하!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그런 죄인들 밑에서 공부할 바에 학교를 그만 두라고 했어요. 오하하하! 뭐 동성애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어쨌든 누구누구도 동성애자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호수 : 교수가 그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요.

더지 : 이런 교수 많아요. '남자들은 이른 여자들이랑 살면 좋죠?' 해놓고 끝에 끝날 '여자도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이는, 일종의 방어막.

둘레 : 여자도 예쁜 여자랑 살면 좋다는 건가.

모두 : 오하하

초생 : 문제제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만, 우리가 그 수업에 실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은 '여러분, 힘내세요!' 밖에
없는 것 같아 아쉬워요.

별 : 학생들의 무반응도 좋은 거 같아요. 교수가 썩는
말 했을 때 학생들이 웃어주지 않고 무반응하는 거죠.
교수가 좀 당황하더라구요.

초생 : 맞다. 교수들 말고도 학생들한테 해야 할 말도
많아요.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터지면 분위기 띄우는
(?) 학생들.

냥이 : 학생들 문제 공감해요. 제가 수업 들었을 때 다
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발제 내용 중의 일부분이었던
동성애 문제로만 학생들이 막 이야기했죠. 동성애 혐오
발언 대부분.

둘레 : 발언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냥이 : 문제제기 했을 때, 그때부터 막 더욱 혐오발언들
이 쏟아지면 좌절

호수 : 내가 여성주의자인걸 아는 과 사람들과 같은 수
업일 때 내가 문제제기하면, '재는 또 저러는구나. 여성
주의자라서 그래' 하면서 더 효과 없어져요. 또 전공이
니까 선생님 눈치도 보이고...

더지 : 수업내용과 관련해서 교수의 관점에 문제가 있으
면 논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교수가 무의식적으
로 뺄는 말이나 단어사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할 기회를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수업의 중심내용을 흐리게 될
까봐 눈치도 보이고, 교수가 문제 있는 말을 할 때, 즉시
팔막한 말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할텐데~

별 : 문제제기 했을 때 교수가 수업시간에 공개 사과해
야 효과가 있는데, 교수가 졸아서 이메일에 개인적으로
답한다거나, 그냥 지난 시간에 말한 거 다 농담이었다
고 하고 넘어가요.

호수 : 제가 성차심리학(모두 으으으~)! 을 들어요. 그

교수가 자기는 페미니
스트인 것처럼, 공정한 것
처럼 말하죠. 왜 양쪽의 입장을 아

주 공정하게 이야기 해 주는 듯 하는 거 있잖아요. 발언
을 한 순간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맥락에서 그래도 이
야기가 되는데, 수업이 지난 다음에 그런 애매한 부분
에 대해서 말하면, 맥락을 다 놓쳐버려서 이야기가 안
되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문제제기의 어려움〉

호수 : 다른 분들은 강의 시간 중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반응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는 신고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 친구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줘야 할 지 난감할 때
가 있고.

신치 :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교수의 성향을 파악
하고 있고 이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재보는
게 좋은 듯. 이 교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유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처음 보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냥이 : 심각한 사람이었는데, 심한 날은 '자기랑 자기아
들은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 아들이 자위를 할 때...'
어쩔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취하기
도... 교수가 점수 짜기로 유명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험
문제 중에 '교수에게 한마디'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썼
는데 성적이 아주.. 가끔 편찮은 교수들은 다음 시간에
사과하기도 해요.

호수 :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매우 고민. 교수가
평소에 여성주의자처럼 보여서 '고쳐보겠다' 라는 말을

기대하고 문제제기했던 건데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경우
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제기해야 할 때,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고민했었어요. 말투나 단어 같은 것들.

둘레 : 그 말이 불쾌합니다. 보다는 다시 생각해주시었
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나 저는 여성이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한다. 그런 식의 우호적인 표현을.

초생 : 그런 식의 말이 유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식의 표현.

둘레 : 모든 수업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점보복이 우려가 되지만.

호수 : 수업 중에 온라인을 잘 이용하는 수업이 있는데,
익명 게시판이 있어서 매우 잘 이용했어요. 익명 게시
판 필수화하는 거 매우 좋은 듯.

초생 : 근데 쉬웁까요.

냥이 : 온라인 토론이 잘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었는데,
매 첫 시간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를 따
먹는다는 표현을 이용하여 그런 거 있냐는 질문을 하는
이상한 교수였어요. 누군가 온라인으로 문제제기를 했
는데 그 글을 삭제하고 수업 내용을 다시 올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뭐 잘못됐냐는 식으로 대응해서 아주..

호수 : 학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더지 : 익명게시판의 경우, 온라인 테러도 매우 심각
해요.

초생 :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반 학생회 홈페이지 같은
학생 자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그런 것
들이 잘 이야기되면 좋을 듯해요. 가능한 곳에서부터라
도 시작하면 좋겠어요. 모니터링이나 매일도 있지만,
아주 일상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서 과방, 홈페이지 같은 주
생활공간에서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강의
실에 앉아있는 학생과 공동체 사람들이 일치하는 경우
도 많으니.

둘레 : 반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면.

쥐 : 온라인에서의 운동이 얼마나 잘 될지 의문. K교수

사건 때, 정경대학의 반 익명게시판에서 매우 말려드는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초생 : 저질 유머가 많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 여성주의
적 문제제기가 잘 먹히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 누군가
가 나서서 계속해서 반론을 하면, 변화가 보이기도 하
구요. 반 커뮤니티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유대도 강하
지만 이상한 글에 대해서는 다들 입소문으로 추척도 잘
하더라구요. 너무 막가파 식의 글은 좀 걸리지죠.

악플이 달리기도 하지만, 글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
게 생각을 던져주기도 하टे나..

둘레 : 그런데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 너무나 많아서,
관리해주는 사람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초생 : 그런데 그것들이 유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요. 예민하다, 피해망상이다, 라는 뻔한 논리로 대응하
는 게 대부분이죠.

둘레 : 사과하라는 정도의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
해요.

호수 : 교수에게 사과는 명예훼손이죠.

누리 : 학교에서 하는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학생들도 잘 이용을 안하는 듯해요. 우
리학교는 SNU Life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학우들이 이용
하고 있는데, 여성주의적 평가는 아직 강의평가의 주요
한 기준이 아니지만, 때때로, '그 교수 너무 이상한 소
리 많이 한다.' '좀 기분 안좋아진다'는 평가가 있기는
해요. 강의를 선택하는데 있어, 교수에 대한 여성주의
적인 평가를 필요로하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러한 부분에서의 평가가 활성화된다면 좋을 거예요.

더지 : 교수한테 문제제기를 하고싶는데도, 불이익이 있
을까봐 실명으로 문제제기 하기 꺼려하는 학우들을 위
해, 문제제기의 내용을 '강의실뒤킵기' 이름으로 된 메
일로 교수에게 대신 보낼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호수: 교수의 오프라인 메일함에 넣는 것을 대신 해드립니다. 같은 것.

누리: 우표값 투자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초생: 우리도 자료집 나오면 사무실 메일함에 다 넣을 생각이예요.

〈강의실 언어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지: 관악같은 경우는 작년에 원래 강의실 성폭력 모니터링단을 꾸렸다가, 강의실 뒤집기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 중 하나는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제기할 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고래: 사실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가 분분한 상황이지요. 운동에서 이 개념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성희롱이라는 말은 이제 학내 여운단위에서 거의 쓰지 않지만, 성희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놓쳐버린 건 아닌지 싶어요.

더지: 언어 '성폭력'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감은 가해자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지만, 문제를 참예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언어 '성폭력'이나 아니냐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오기 쉬운 것 같아요.

초생: 성적 괴롭힘(성희롱)이 오히려 집단에게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와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교양과 규율 문제 등을 제기하기엔 더 유효한 개념인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내규와 교양, 문제 해결이 중시되잖아요. 성폭력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험을 섬세하게 여러 개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희롱이든 성차별이든....

둘레: 운동단위가 그 범위를 스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해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는데 이제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별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현재상황에는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초생: 캠페인을 할수록 개념을 고쳐나가고 조금씩 섬세해지는 것을 느껴요. 케이스를 많이 생각할수록 계속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녀들의 호호호 작전〉

둘레: 우리는 유쾌하되, 교수의 인격모독은 심하지 않은 좋은 방법 없나요?

별: 근데 우리가 보기엔 괜찮아도 교수 입장에선 또 그게 아니라고 할테고, 어려워요.

더지: 심하게 모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럴만하니까, 명예훼손이 들어오면 돈이 좀 들겠조.ㅋ

고래: 관악에서는 어떤 거 해봤어요?

더지: '작전명 D(뒤집기)'라고, 강의실 뒤집기라는 모임을 알리고, 모니터링단을 모집하려고 뒤집개 모양이 그려진 책갈피를 나누어주었었어요. 2학기 때에는 문제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좀 강하게 역선을 취해볼까 해요.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뒤집는 게 어떨지?

초생: 오하하 나는 진짜 뒤집개를 나눠주고, 교수가 별 소리를 하면 그걸 듣고 뒤집는 줄 알아요.

(모두 아우.)

더지: 관악에서는 상습적인 교수에 대해서 방학동안 조사를 해서 사례를 모으고, 그 수업에 들어가서 개강

첫날에 그 사람의 발언과 그게 왜 문제가 있는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수업 듣는 사람에게 뿌릴 예정이에요.

냥이: 학교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6월에 교수성폭력 공청회 장소 빌릴 때도 힘들었어요.

신치: 그 때, 교수성폭력 토론회 장소 잡을 때 이름 때문에 바로 커트됐어요.

사이: 원래는 대중보고 빌려주는데, 그 때는 문서 봤다가 얼굴 봤다가 문서 봤다가 얼굴 봤다가...(사이 연극 예술!)

초생: 허가했다가는 높은 분들이 보고 난리 나잖아요.

쥐: 성매매 기획 강연회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와서, 장이 누구냐구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유명단체 아니냐고.. 하하하

둘레: '뭔가 재밌는 거'라고 했을 때 게릴라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블랙 교수(상습적인 언어성폭력 가해교수) 있을 때 수업 바로 전에 찌라시를 뿌린다거나.

냥이: 근데 그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거 같아요. 선거 때, 교수가 잘하는 별소리를 적은 피켓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었는데 반응 좋았어요.

고래: 교수한테 하는 것도 물론이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죠.

둘레: 물론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강의실에서의 반응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고래: 머리가 굳어서 자보전, 피씨 이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초생: 한번 크게 기획하면, 아하~중도 앞 데스크! 이려고, 놀이공원에 있는 것처럼, 커다란 모기 옷 입고 서서 "교수가 헛소리하면 바로 쫓드립니다." 하는 피켓을 드는 건 어때요? 계속 강의실 앞에 지키고 서 있는거야.

신치: 작년 재작년 선거유세를 할 때, 토끼인형을 뒤집어쓰고, 악수 한 번 해주고 (잘 들으라고). 올해는 유에프오를 뒤집어 쓰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목을 끄는 것에서 효과가 있지만 자주는 못하죠.

초생: 그런게 가볍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필요한 스킬이에요.

냥이: 그런데 부작용이 많아요. 사람들이 막 손대고 잡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하는 거지. (모두 웃음)

냥이: 쓰고 하는 거 정말 재밌어요.

둘레: 너무 노가다긴 한데, 악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록을 바닥에 꼭 깔아.

초생: 에드벌론을 띄울까.

둘레: 세로 플랑? 악질 교수 리스트 뽑아서 게시해도 재밌겠다.

별: 등에 붙일까.

호수: "공개수배합니다." 이런 거 뿌리는 것도 재밌겠다.

냥이: 건물옥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유인물 뿌려요.

별: 백양로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고.

고래: 에드벌론 재밌을 거 같애.

둘레: 그거 비판가??

초생: 자보전은 외로워요.

신치: 옐로우 페이지 프로젝트라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대한 글을 쓰고 돌돌 말아서 밤에 여기저기 꽃아 놔어요. 그거 찾아서 의견을 뒤에 적어서 가져오면 선물을 주겠다 했죠. 꽤 유용했어요.

냥이: 성의 있게 쓰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신치: 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달아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느 순간부터 맥주잔이 오가며 이어진 좌담은 밤늦게 까지 이어지다 결국 막차 시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뿌듯하게 마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의 중 언어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녀들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